

## “오늘 결과에 사용자 측 반드시 책임져야” 축소교섭 벌였으나 입장 차 확인...노조, 13일 2차 총파업 예고



금속노조가 9차 중앙교섭에서 축소교섭을 벌이며 입장 차를 좁히기 위해 노력했으나, 쟁점을 확인한 채 교섭을 종료했다. 같은 날 금속노조는 중앙집행위원회 회의에서 8월 13일 2차 총파업을 결정했다.

금속노조와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가 7월 22일 서울 중구 정동 금속노조 회의실에서 9차 중앙교섭에 임했다. 7월 16일 총파업 이후 첫 교섭이다.

장창열 금속노조 위원장은 교섭을 열며 “일하는 사람들이 좋은 환경에서 노동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 출근했다가 아무런 사고 없이 집으로 돌아와서 가족들과 편안한 시간

을 보내는 것이 아직 어려운 세상이라는 생각이 든다”며 “노사가 함께 서로 이점을 좁히도록 노력하자”고 타결 의지를 밝혔다.

박근형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장은 “최저임금 결정으로 기준점이 나왔다고 판단한다”며 “최근 기록적인 폭우로 안타까운 일이 많았다. 금속노조 기후위기 대응 요구는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한다. 오늘 어디까지 이점을 좁힐 수 있을지 다 열어놓고 교섭할 준비를 하고 왔다”고 각오를 밝혔다.

금속노조와 사측은 곧바로 축소교섭에 돌입해 5시간 동안 의견을 나눴으나, 결국 차이를 재확인했다.

정진홍 금속노조 경주지부장은 교섭을 마무리하며 “타결할 의사가 없다고 보인다. 지부장으로서 원만하게 합의하길 간절히 바라고, 노력했는데, 결과가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며 “오늘 결과에 대해 사용자 측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장창열 위원장은 교섭을 마치며 “노·사 인식 차이가 얼마나 큰지 확인했다. 시간이 많지 않다”며 “오늘 마지막이라고 생각하고 마무리하려고 했으나 안 됐다. 결국 우리는 총파업할 수밖에 없다. 결단하라”고 촉구했다.

금속산업사용자협의회는 축소교섭에서 ▲온전한 작업중지권 보장 ▲기후 위기 대응 ▲금속산업 최저임금 등 중앙교섭 요구에 따른 안을 제시했다. 올해도 사측 금속산업최저임금 제시안은 법정 최저임금을 결정한 이후에 나왔다.

금속노조와 사용자협의회는 구체적인 문구를 둘러싼 이견을 끝내 좁힐 수 없었다.

10차 중앙교섭은 8월 5일 서울에서 열린다.